

일본의 성장전략 추진과 잠재성장률 전망

* 이 자료는 미즈호은행이 발표한(『미즈호산업조사/56, 2016.12.30』) 「특집, 일본산업의 중기전망-향후 5년(2017-2012)의 'II-2. 성장전략의 추진에 의해 잠재성장률 1%정도로'를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인구감소 하에서의 여성·고령자의 취업확대를 통한 노동투입량 감소 억제
- 기업의 기대성장률을 높여 자본투입을 증대
- 생산성 상승을 위한 다양한 개혁의 필요
-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 1%정도까지 회복 전망

□ 일본경제의 정체, 성장전략 지연이 문제

- 아베노믹스는 이차원의 금융정책과 10조 엔에 달하는 재정정책에 의해 출발은 좋았음
 - 그러나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일본경제는 다시 정체국면에 빠졌음. 이에 내구 소비재의 조정이 장기화된 점, 신흥국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
- 그러나 일본경제의 정체감을 가져온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압력에 대하여 아베노믹스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전략이 현 시점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음
 - 금융완화의 한계가 의식되고 있는 가운데, 일본경제의 재흥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성장전략이 어느 정도나 진전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

□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제로 근처

-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에는 2% 정도이었으나 생산성 상승률의 둔화와 노동력인구의 감속에 의한 하락압력으로 현재 0%대까지 저하
-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가 계속되는 동시에 기대성장률의 부진에 의해 설비투자가 억제되어 생산성(TFP)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경제의 실상임
 - 이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020년대에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제로 근처까지 저하될 전망

- 그러나 인구감소 하에서도 민관이 총력을 기울인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노동투입, 자본투입, 전요소생산성(TFP) 등 잠재성장률의 3가지 요소 중, 노동투입은 당분간 여성 및 노령자의 취업률 향상에 의해 커버될 수 있을 것임
- 자본투입과 생산성도 성장전략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개선의 여지가 클 것임

□ 여성·고령자의 취업확대에 의해 노동투입량의 감소속도 연간 0.1%로 억제

- 노동투입에 대해서는 감소경향을 크게 반전시키는 어려우나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, 그 중에서도 여성 및 고령자가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일본정부는 출산·육아 등으로 이직률이 높기 쉬운 25-44세 여성에 대하여 2020년 시점의 취업률을 77%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
- 2015년 실적치는 71.6%로 5년 전부터 5% 이상 상승하고 있어 같은 속도만 유지해도 목표달성은 가능한 상황임
- 이 같은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률의 상승경향을 계속함으로써 당분간 노동투입량의 감소속도는 연간 0.1%로 억제될 전망

□ 기대성장률을 높여 자본투입의 플러스 기여도를 증대

- 자본투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대성장률을 높일 것이지 아닐지의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임. 이제까지 아베 정권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왔음
- 성장지향의 법인세 개혁으로 법인세실효세율의 인하(2016년도 29.97%, 2018년도 29.74%)를 결정한 외에,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, 일본기업의 수익력 향상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왔음
- 이 같은 투자환경 정비로, 기대성장률의 향상과 설비투자의 활성화, 나아가 자본투입의 확대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상승이 예상됨

□ 생산성 상승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이 필요

-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대응책도 다양함

- 산업의 신진대사 활성화와 ICT투자의 확대, AI·IOT를 비롯한 기술프런티어 개척과 그 이용 확대, 나아가 이노베이션에 친화적인 노동방식의 실현과 이를 받쳐주는 폭넓은 제도개혁도 필요
- 아베 정권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, 이들 개혁항목의 전부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 중 일정 정도를 달성할 수 있으면 TFP 상승률을 서서히 높여 나갈 수 있음

□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신진대사 추진도 중요

- 산업의 신진대사에 대해서는, 일본은 유럽·미국과 비교하여 창업률, 폐업률이 모두 낮고 진척속도도 느림
- 산업의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제도·방식을 일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보호, 재도전을 가로막는 법제·관행의 재검토에 더하여, 고용규제의 명확화·유연화나 안전망의 확충, 대학의 질 향상·국제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임
- 이상의 노동투입, 자본투입, TFP에 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현재 0%대 중반에 그치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성장전략이 성공하면 2020년대를 향해 1%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시사점

-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인 노동의 투입량, 자본의 투입량, 그리고 이 노동과 자본을 변환시키는 기술, 즉 생산성 또는 TFP에 의해 좌우됨
- 이상에서는 개혁이 이 3가지 생산요소 각각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을 시사
- 저출산·고령화는 노동투입을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또 기대성장률 저하는 투자(자본투입)를 낮추어 비효율적인 노동방식은 저생산성을 각각 가져왔음
- 따라서 이들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성장전략의 핵심임
- 그러나 이제까지 이 같은 개혁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지연이 낮은 잠재성장률의 원인이었음. 